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북경제통산진흥원은 '전주전통한지 부활을 위한 대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전통한지 부활 머리 맞대다

전당 - 전북진흥원 대토론회

“한지 재료·제작기법 고증이 도내 한지산업에서 필요한 일”

“닥나무 상품종 육성” 등도 제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북경제통산진흥원은 '전주전통한지 부활을 위한 대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통문화 및 한지 관련 종사자·서예가·한국화가·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정부 한지정책과 한지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전통한지의 원형 복원을 위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수목화가 김호석 화백을 비롯, 국립수목원 정재민 박사와 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 박후근 행정안전부 서기관, 이철량 전북대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첫 발제에 나선 김 화백은 '전통한지의 역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 전북의 한지 산업에서 필요한 일은 전통한지의 재료와 제작 기법을 고증해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한지 제작은 닥 섬유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한지의 본질을 발휘했을 때 가능하며, 국내에서 외면한 전북한지가 외국에서 인정받는 현실에 대해 이제는 전북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닥나무의 기원과 실제 규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재민 박사는 “닥나무의 핵과 염색체 DNA를 분석해 한국 닥나무가 애기닥나무와 꾸지나무의 잡종이고 그 잡종이 전북에만 지방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현재 닥나무 재배의 문제점은 무성 번식과 압나무만 있는 성비의 불균

형에 있다며,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고품질의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상품종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현아 한지센터 연구개발실장은 ‘한지의 시대적 변천과 특성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한지와 현대의 한지를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조선시대 한지는 현대 수목한지 제조기술로 재현이 어려울 만큼 높은 평량과 밀도를 갖춘 최고의 품질 수준을 나타냈으며, 간접적 보존성을 나타내는 내절도도 대단히 우수해 닥 섬유와 한지 특유의 내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한지는 조선시대 한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장 크게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은 밀도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한지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한지의 특성을 계승하고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통한지 표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후근 서기관은 “지금까지 기록보존용 한지 진흥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한편 역사와 유물 속에만 머물고 있는 한지를 기록매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통한지의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지 사용 의무화, 문화재 수리 등에 사용되는 한지 품질기준 마련, 행안부 훈장용지 개선사업 후속조치 추진 및 정부차원의 수요확산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서화용 한지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요소’를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철량 교수는 전통한지의 장점은 보존성, 단점은 보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지의 표면 상태는 발묵과 필선을 제한하는 단점으로 작용한다며, 서화용 한지는 그 쓰임새에 있어 매우 예민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그는 “서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지가 필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다면, 서화용지로서 한지는 다양해야하며 무엇보다도 붓질과 먹의 표현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맑은 빛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을 좌장으로 다양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서화기와 한국화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한지장인들과 전통한지 진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공모전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종직)는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표방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신에 부합된 신선한 포스터 디자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참가대상은 전주국제영화제를 널리 알릴 참신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일반인 또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하 1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여를 위한 시에는 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3월 23일까지 이메일(onlinemedia@jif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작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4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1팀)에게는 150만원(1팀),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1팀)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물길따라

역사 따라

만경



익산 소리골 작은 미술관 기획전시 내달 23일까지

(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정현율)의 소리골 작은 미술관은 기획전시 ‘물길 따라·역사 따라 만경’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만경강 주변 물길을 담은 자연친화적 사진을 통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시절을 이야기하며 대간선수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한다.

만경강 주변은 옥야홍련(沃野紅蓮, 노전백리(蘆田百里)라고 불리었다. 넓게 펼쳐진 기름진 들과 자연적으로 생겨난 중간 중간의 연방에서 자생하는 붉은빛의 연꽃이라는 뜻을 지닌 옥야홍련은 풍요와 낭만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마치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연상

케 했던 만경강은 그간 시간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이에 소리골 작은 미술관은 시대별로 발행했던 지도와 빛바랜 당시의 사진들을 토대로 만경강의 변화상을 담아낸다.

전시에는 사진자료 및 역사 이야기 이종진 박사를 비롯한 영상 미디어 신귀백(익산민족예술연합회장), 사진작가 지선정(익산사진작가 협회장), 사진작가 이태희(익산사진작가 협회원)가 참여했다.

류소라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만경강을 이해하고 지역의 애郷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했다”며 “시각과 미디어의 협업을 통한 실험예술의 장을 구현했다”고 했다.

오픈식은 23일 오후 6시30분. 이날 행사에선 이종진 박사의 강연과 함께 만경강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시는 다음달 23일까지.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25일 ‘아름다운 예술시장’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금호터미널(전주터미널·전북공예협동조합과 공동 개최하는 2018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25일 오전 11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행한다.

재단은 교통거점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2017년도 2회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격월로 연 6회 운영한다.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돌아가는 순간’까지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업체의 공예품 및 예술작품 판매, 버스킹 문화공연,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작품전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



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통해 전북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거점과 문화·예술·관광의 융합으로 다시 찾는 전북을 위한 관광브랜드의 가치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